

# 전자책 서비스 중심의 병영도서관 활성화 방안\*

## A Study on the Operation Status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Korean Military Libraries: Focused on the e-Book Services

전 경 선 (Kyungsun Jeon)\*\*

이 지 수 (Jisu Lee)\*\*\*

### 초 록

본 연구는 병사들의 독서환경 접근성을 높이고, 병영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자책 서비스를 중심으로 병영도서관 및 전자책 서비스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병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자책 이용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서관 관계자 및 전자책 운영 실무자(담당자)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병사들의 부대 내 전자책 접근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전자책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대 내 IT 환경, 기기, 접근 허용 시간 등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뷰 결과에서는 전자도서관의 낮은 이용률 및 인지도, 전자책 보급 시 유통업체마다 각기 다른 전자책 뷰어 및 관리 시스템 문제, 진중문고 관리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자책 보급, 전자책 전용기기 보급 등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이 제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자책 서비스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전자책 운영 및 이용 증진을 위한 디바이스 및 플랫폼 활용, 전자책 라이선스 및 수서 시스템 개선, 진중문고 전자책 서비스의 단계적 도입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 status of the military library and e-book service in order to improve the soldiers' access to the reading environment and to suggest a plan to revitalize the military library.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nvironment such as the IT environment, devices, and time allowed for access to activate the use of e-books. According to the interview results, problems such as low usage rate and awareness of the digital library, the use of different e-book viewers and management systems for each distributor when distributing e-books, and the dissemination of e-books for the management and accessibility of the Armed Services Editions in library were raised. In order to activate the e-book service of the library in the military, diversify e-book service promotion and education programs, activations such as establish standards for the e-book operating system for each county, use platforms and devices to promote e-book operation and use, and construction of e-book service using Armed Services Editions were derived.

키워드: 병영도서관, 병영도서관 운영 현황, 전자책 서비스, 진중문고, 활성화 방안

Military Libraries, Military Libraries Operation Status, e-Book services, Armed Services Editions, Activation of Military Libraries

\* 이 논문은 2021년 진중문고 운영 및 활용 증진방안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빙교수(ksjeon@sookmyung.ac.kr) (제1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빙교수(jl05r@sookmyung.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2년 8월 22일 논문심사일자 : 2022년 8월 22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8월 30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3): 295-324, 2022.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3.295>

※ Copyright © 2022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우리나라는 장병들의 문화생활, 그중에서도 특히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60년대부터 민간차원에서 시작된 '군부대 책 보내기 운동'을 기점으로 이러한 활동은 병영도서관의 확대와 독서활동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도서관법」을 개정하면서 병영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포함했으며, 국방부 또한 '병영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2009년부터 대대급 이상 군부대에 병영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 결과 2010년 1,579개관이었던 병영도서관은 2019년 1,855개관으로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국방부, 2020a).

2019년부터는 장병들의 자아실현과 자기개발 등의 차원에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이 허용되기도 하였다. 국방부는 이를 활용해 병사들의 독서환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육군 전자도서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자책(e-book) 통합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공군, 해군 역시 군별로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즉, 국방부는 병사들의 독서행태 변화에 따라 전자도서관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개인별 접속 및 대출·반납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병영도서관에서 인쇄 도서의 확충은 도서관 공간 및 관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독서 환경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차 전자책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징병제인 한국군의 병사 대부분은 20대로 이들은 전자책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로 조사된 바 있다(김영만, 2015). 문화체육관광부(2020)의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는 한국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7.5%로 2019년에 비해 8.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20대 청년층의 독서율은 78.1%로 2019년에 비해 0.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자책 독서율은 성인 19%, 학생은 49.1%로 2019년보다 각각 2.5%, 11.9% 증가 추세를 보여 20대 청년층의 독서생활에서의 전자책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병영도서관에서 모바일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를 이용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전자책에 대한 용이성과 유용성은 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인순 외, 2020).

하지만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계획에 비해 실제로는 전자도서관 및 전자책 서비스 이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육군의 전자도서관 가입 현황 및 이용률을 살펴보면, 육군 장병의 전자도서관 가입은 총 17,394명 4.3%로 나타났으며, 이용률은 총 5,464명 1.4%로 조사되어 전자책 독서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 2020b). 따라서 스마트 기기에 친숙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 병사들을 위해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다양한 독서환경 조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방부가 전자도서관 확대뿐만 아니라 진중문고의 전자책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시점에서 전자책 서비스 현황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운영을 위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를 기반

으로 병영도서관 및 전자책 서비스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병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독서실태 및 진중문고 인지 여부, 전자책 이용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자도서관을 통한 전자책 이용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자책 운영 실무자(담당자)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책 서비스 운영 현황과 이용자 요구 및 한계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자책 서비스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2. 선행 연구

### 2.1 병영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병영도서관 관련 연구는 2003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법률 제6906호)』에 병영도서관이 특수도서관 범주로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내용은 병영도서관 운영 활성화, 병영도서관 평가지표 개발, 독서 및 관련 사업 활성화 등이 중점적으로 수행되었다.

병영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서 차미경, 송승섭(2005)은 병영도서관의 정책자료 분석, 현황 조사 및 병사 면담을 기반으로 병영도서관의 역사, 조직, 시설, 예산, 장서, 인력 및 이용자의 요구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병영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 모델 및 정책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성은정, 홍재현(2015)은 공군 병영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평가를 단급, 전대급, 대대급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하였다. 분석

내용으로는 2013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중 병영도서관 운영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도서관 계획, 예산, 이용자 서비스, 장서관리, 인적자원, 시설관리, 교류협력, 운영 관련 항목 등의 문제점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장윤금 외(2018)는 병영도서관 관련 법, 제도 등의 운영 체제 및 관리 현황, 병영도서관 협력사업 현황,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으로 법/제도, 인프라/시설, 장서, 서비스/인력 등을 조사하여 병영도서관의 전반적인 영역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노영희, 곽우정(2019)은 병영도서관 운영평가, 우수 사례 및 현황, 해외 병영도서관 운영 현황 등의 분석과 면담 및 설문을 통해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조사 항목으로는 병영도서관 장서 수, 도서관리프로그램, 상호대차, 운영시간, 인력, 이용자 수 및 서비스 현황 등과 같은 운영 현황과 도서관 운영 및 인프라, 시설, 장서, 서비스 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하였다.

병영도서관 평가지표 개발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송승섭(2009)이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제시한 병영도서관 평가지표의 개발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84개 병영도서관에 적용하여 더욱 합리적으로 활용 가능한 병영도서관 평가지표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병영도서관 서면평가 및 실사 결과를 기반으로 계획, 재정, 서비스, 장서관리 등 8개 영역 28개 지표와 지표별 평가 척도 일부를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군별 특성에 따라 해군과 공군, 육군 등의 병영도서관을 분리, 그룹화하여 정책 평가를 시행하며 실태조사 표준안을 기반으로 군별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차성중, 한중엽(2013)은 2011년 전국 병영도서관 운영 실적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운영 상황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평가영역으로는 계획, 재정, 서비스, 장서관리, 인적자원, 시설, 교류협력 및 기타(독서프로그램, 운영위원회 등) 등을 분석하였다.

병영도서관 독서 및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서 차미경, 송승섭(2006)은 병사들의 독서요구를 반영한 장서개발 정책 수립을 위해 국내 2개 사단의 육군 병사를 대상으로 독서실태 설문조사, 병영도서관 현장 방문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병사들의 독서량, 독서방법 및 경향, 도서입수경로, 독서의식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독서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병영도서관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방안으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예산 및 제도적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2015)는 병영독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지원 사업 중 하나인 독서코칭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병영독서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확대와 내용의 확장,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유기적 추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영만(2015)은 병영독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병영독서에서의 전자책 활용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3년 ‘국민독서실태조사’와 ‘전자책독서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병사들의 연령대인 20대의 독서행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병영독서 활성화 방안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병영독서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병영독서 SWOT 분석’을 진행하여 병영독서 활성화를 위한 전자책 도입, 병영독서의 자율성 고양 및 다양한 병영독서

지원사업 확대 전략을 제안하였다. 장윤금 외(2018)는 병영도서관 이용자의 독서행태 및 인식, 병영도서관 이용행태, 진중문고의 활용성 등을 병사 대상 설문조사하여 병영도서관의 서비스 현황, 장병들의 독서증진 및 병영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2.2 공공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서비스

1990년대 후반 출판계에서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전자책은 확산되는 시기였고, 공공도서관 역시 정부 주도로 ‘전자도서관’, ‘가상도서관’, ‘사이버도서관’ 등의 이름으로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19). 2000년에는 ‘도서관정보화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전국 공공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 설치와 콘텐츠 확충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sup>1)</sup>(2020)에 따르면 2007년 한국 전체 공공도서관 600개관 중 253개관(42.4%)이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9년에는 총 1,134개관 중 847개관(74.6%)이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장서 중 전자책 비율은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도서관과 전자책 출판계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백지원(2014)은 도서관계와 출판계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에 대한 상반된 시각과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도서관계의 공공도서관 전자책 대출의 핵심 원칙을 도출하여, 주요 쟁점 사안별로 공공도서관의 사명, 전자책 대출 모델

1) <https://www.libsta.go.kr/>

개발, 법적 제도 마련 등 향후 도서관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신정아(2021)는 한국 도서관과 전자책 서비스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문제 상황을 분석하였다. 전자책 서비스는 1999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와이즈북, 북토피아 등의 전자책 플랫폼이 등장하였고, 2006년에는 한국의 대형서점 중 하나인 교보문고가 전자책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2017년에는 오디오 전자책 플랫폼이, 2019년에는 교보문고가 전자도서관 대여형 모델을 출시하며 다양한 유형의 전자책 서비스가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책 업계는 도서관에 제공하는 전자책 콘텐츠 서비스 방식을 영구적 대여방식인 소장모델뿐만 아니라 구독서비스, 이용권 등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다. 2012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국가표준 공용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개발을 수행하였으나, 출판계에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 정착되지 않았음을 논의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모델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Woodward(2010)는 데이터베이스나 전자저널과 같이 이미 성공적으로 도서관의 전자자원으로 통합된 유형도 있지만, 전자책은 출판업계와 도서관이 여전히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찾고 있으며 전자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도서관 운영 모델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Pharo와 Learned(2011) 또한 주요 출판사가 공공도서관에 전자책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앞으로는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도서관 친화적인 모델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 간의 협력 및 출판사, 대행사와의 협력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국내

경우 이용훈, 박상미(2013)와 이지연(2014)은 새로운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이용자, 도서관, 출판계 등 부문 간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주리(2021)는 출판계와 도서관계 간에 쟁점이 되어 온 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서비스 현황 및 출판계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 출판사 규모 및 장르별 인식 차이, 공공대출권에 대한 논의 필요성, 출판계-도서관계 상생을 위한 협력,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위한 정부의 도서 관련 재원 마련 확대 및 도서관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IFLA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도서관의 e-Book 문제에 영향을 미쳤고, 이 기간동안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에서 e-Book 및 오디오북의 대출 기능을 확장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출판사와 도서관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e-Book의 저작권, 라이선스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IFLA, 2021).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은 전자책 가격 책정 모델, 배경, 원칙, 출판사 및 계약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관 전자책에 대한 출판사의 모델은 도서관의 오픈액세스 서비스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전자책 대출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ALA, 2021).

이처럼 병영도서관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를 기반으로 현황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장병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병영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는 다수 조사

되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는 도서관계 및 출판계에서 운영 모델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병영 내 전자책 서비스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책 서비스 현황과 운영에 대해 이용자와 운영자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전자책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병영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병영도서관 및 전자책 서비스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전자도서관을 통한 전자책 이용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서관 관계자 및 전자책 운영 실무자(담당자)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3.1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독서실태 및 진중문고 인지 여부, 전자책 이용 경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소속 병사를 대상으로 2021년 8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표 1〉 참조). 군별 구성 비율은 비교적 다양한 군별 응답률 확보를 위해 군별 구성 비율에 대한 제곱근 비례배분 방식으로 표본 수 할당을 조정하였다.

설문 항목은 병영도서관의 독서실태 및 이용 경험, 전자책 이용 경험, 전자책의 수용 의도 및 행동 등을 조사한 장윤금 외(2018), 윤수경, 김명지, 최준호(2014), 이애리, 최재원, 김경규(2012), Rogers(2003) 등 기존 선행 연구의 설문 문항에서 해당 질문 내용을 추출하여 수정·반영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총 23문항으로 〈표 2〉와 같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독서실태 및 진중문고 인식’, ‘전자책 이용 경험 및 활성화 방안’ 등 선택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선택형 문항은 ‘단일’ 또는 ‘복수’ 선택이 가능하였으며, 4점 척도(예: 불만족=1, 불만족 하는 편=2, 만족하는 편=3, 만족=4) 및 5점 척도(예: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3, 그렇다=4,

〈표 1〉 조사 설계

구분	온라인 설문조사	FGI 조사
모집단	병사	장교
조사대상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소속 병사	도서관 관계자 및 전자책 담당자
조사기간	2021년 8월 12일 - 8월 26일	2021년 8월 11일 - 11월 24일
표본수	총 4,051명	총 12명(총 6회 실시)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비대면 방식의 FGI(60분-90분)

〈표 2〉 설문조사 항목

항목	내용
응답자 특성 (3문항)	- 소속군 유형 - 소속 부대 - 계급
독서실태 및 진중문고 인식 (7문항)	- 군 복무 이전 독서에 대한 관심도 - 입대 전후 독서량 - 부대 내 독서경험 및 목적 - 진중문고 인지 여부 및 관심도 - 진중문고 이용도서 분야
전자책 이용 경험 및 활성화 방안 (13문항)	- 전자도서관의 전자책 이용 가능 여부 및 인지 경로 - 전자책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진중문고의 전자책 제공 시 선호기기 및 전자책 유형 - 소속부대의 전자책 독서환경 만족도 - 전자책 관련 인식 · 상대적 이점/적합성/복잡성/관찰가능성/시험가능성/이용의도

매우 그렇다=5), 또는 10점 수치평가척도(예: 전혀 선택한 적 없음 = 1점, 자주 선택하였음 = 10점)로 측정하였다. 서술형 문항은 입대 전과 후의 월 단위의 평균 독서량, 국방부 전자도서관의 전자책 평균 이용 권수, 국방부 전자도서관의 만족 또는 불만족 이유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 분석을 위해서는 선택형 문항은 빈도분석을 하여 부대 규모별, 장병의 계급별 특성에 따른 이용행태 및 만족도를 문항별 총수, 백분율 빈도분석 및 평균을 분석하였고, 서술형 문항은 내용을 분석하여 응답을 정리하였다.

### 3.2 인터뷰

전자책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서관 관계자 및 전자도서관 담당자 12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총 6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군별

도서관 관계자 및 전자도서관 담당자는 그룹별 1명-3명으로 구성되었다(〈표 3〉 참조). 인터뷰 기간은 2021년 8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이며, 비대면 방식의 zoom을 활용하여 약 60~90분 간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면담자에게 동의를 받아 녹화되었으며, 내용은 전사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으로 〈표 4〉와 같이 1) 주제 관련 업무 소개, 2) 운영 현황, 3) 전자책 운영의 문제점, 4) 진중문고의 전자책 서비스 도입 필요성, 5) 개선사항 및 활성화 방안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는 질문의 내용을 통제하지 않고 면담자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인터뷰 자료의 분석은 개방형 코딩을 적용하여 핵심주제 및 범주를 찾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어 및 구문, 주제 등 유사한 내용의 개념들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바탕으로 분류되었다.

〈표 3〉 인터뷰 대상자

기관	면담자	성별	면담자 지위	담당(조직상 역할)	인터뷰 일시
육군	P1	남	소위	도서관 관리 및 진중문고 담당	2021.08.13
	P2	남	대위	진중문고 담당	2021.11.24
육군본부	P3	여	사무관	육군 본부 도서관 전자도서관 담당	2021.11.11
공군	P4	남	대위	도서관 관계 업무	2021.08.11
	P5	여	주무관	진중문고 담당	2021.11.22
공군본부	P6	남	주무관	병영도서관 관리 전자도서관 담당	2021.11.11
해군	P7	남	소위	도서관 관계 업무	2021.08.11
	P8	남	소령	진중문고 담당	2021.11.24
해군본부	P9	남	중위	도서관 및 콘텐츠 담당	2021.10.30
해병대	P10	남	대위	도서관 관계 업무	2021.08.13
	P11	남	대위	진중문고 담당	2021.11.22
해군사관학교	P12	여	사서	도서관 사서 전자도서관 담당	2021.11.11

〈표 4〉 인터뷰 문항 구성

내용	주요 질문
주제 관련 업무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름과 소속, 현재 도서관 업무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li> <li>• 전자책 서비스 관련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li> </ul>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및 전자책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산, 장서, 인프라, 서비스)</li> </ul>
전자책 서비스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책 서비스 제공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입니까?</li> </ul>
전자책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중문고의 전자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ul>
개선 및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책 서비스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li>• 전자책 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li> </ul>

## 4. 병영도서관 운영 현황

### 4.1 시설 및 장서

병영도서관은 2000년대 초반까지 장서 부족, 낙후된 시설, 전문인력 부재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2003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법률 제6906호)」에 병영도서관이 특수도서관 범주로 추가되고, 2005년부터는 ‘병영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되면서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2006년 「도서관법」 개정으로 병영도서관은 특수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의 범주로 편입되었으며, 2009년에는 국방부 ‘병영도서관 운영훈령(국방부훈령 제1012호)’이 제정되면서 운영체계가 마련되었다. 2009년부터는 대대급 이상 부대에 병영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에 병영도서관 설치가 완료되었다(국방부, 2020a). 하지만 어떤 연도에는 부대개편 및 통폐합 등으로 병영도서관 운영이 중단되어 일부 축소된 예도 있다.

병영도서관은 2019년 기준 총 1,855개관(육군



1,427개, 해군 267개, 공군 110개, 국방부 직할 부대 51개)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나(〈표 5〉 참조), 각 군과 부대별 상황에 따라 시설 규모는 다르게 나타났다.

〈표 5〉 병영도서관 장서 보유량별 도서관 수 변화(2019년 기준)

(단위: 개소, 권)

연도	제대별		장서 보유량별 도서관 수						총 장서량 (도서)	
			계	500권 이하	1,000권 이하	2,000권 이하	3,000권 이하	5,000권 이하		5,000권 초과
2015	육군	대대급이하	1,230	87	206	476	242	178	41	2,445,685
		연대급이상	286	17	24	82	51	53	59	1,849,001
		소계	1,516	104	230	558	293	231	100	4,294,686
	해군(해병 포함)		213	45	47	50	33	21	17	665,045
	공군		110	-	4	30	25	27	24	557,554
	국직		49	2	5	9	13	10	10	705,511
	계		1,888	151	286	647	364	289	151	6,222,796
2016	육군	대대급이하	1,200	37	169	450	284	212	48	2,549,164
		연대급이상	305	13	23	94	55	62	58	1,889,758
		소계	1,505	50	192	544	339	274	106	4,438,922
	해군(해병 포함)		213	45	47	50	33	21	17	665,045
	공군		110	-	1	29	25	30	25	577,699
	국직		49	2	5	9	13	10	10	706,523
	계		1,877	97	245	632	410	335	158	6,388,189
2017	육군	대대급이하	1,192	47	182	447	266	205	45	2,534,285
		연대급이상	307	17	22	95	57	59	57	1,904,586
		소계	1,499	64	204	542	323	264	102	4,438,871
	해군(해병 포함)		243	73	43	52	38	15	22	884,606
	공군		110	1	4	24	28	25	28	573,222
	국직		46	1	3	16	10	6	10	650,386
	계		1,898	139	254	634	399	310	162	6,547,085
2018	육군	대대급이하	1,177	32	91	429	317	240	68	2,866,932
		연대급이상	272	5	21	91	56	49	50	1,306,589
		소계	1,449	37	112	520	373	289	118	4,173,521
	해군(해병 포함)		267	68	54	60	43	19	23	982,973
	공군		110	-	2	22	24	34	28	633,526
	국직		52	1	2	17	9	10	13	750,445
	계		1,878	106	170	619	449	352	182	6,540,465
2019	육군	대대급이하	1,172	3	43	434	380	240	72	2,999,743
		연대급이상	255	-	10	92	55	49	49	1,147,502
		소계	1,427	3	53	526	435	289	121	4,147,245
	해군(해병 포함)		267	71	44	64	43	23	22	1,017,206
	공군		110	-	2	29	27	21	31	634,236
	국직		51	2	4	17	10	9	9	732,358
	계		1,855	76	103	636	515	342	183	6,531,045

출처: 국방통계연보(국방부, 2020a)

병영도서관 관리는 부대장 책임으로 관리 및 운영(도서 수집·정리·보존·폐기 등)되고 있으며, 병영도서관 도서 평균보유량은 3,520권으로 나타났다(국방부, 2020a). 하지만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에 제시된 병영도서관 시설 및 장서량 기준인 병영도서관 1개당 도서관 규모 66㎡ 및 장서 6,000권의 기준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6〉 참조).

진중문고는 1978년부터 국방부가 중대급 이상 부대에 시중 도서와 동일 내용으로 판형만 축소하여 한정제작·보급하는 도서로, 장병들의 독서욕구 충족 및 병영문화 개선을 위하여 선정된 양질의 도서를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진중문고의 보급 수량은 병영문화 개선 등 장병의 독서활동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 2회 보급하던

것을 2014년부터는 연 4회로 증대시키는 등 보급 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급권 수는 2010년 432,000권에서 2019년 885,159권으로 104.9% 증가하였고, 선정 권수 역시 2010년 36권에서 2019년 73권으로 102.8% 증가하였다(〈표 7〉 참조). 2012년부터는 병영도서관 설치가 불가한 격오지 부대원들도 읽을 수 있도록 중대급 미만의 소규모 독립 부대에도 보급하고 있으며, 진중문고의 예산은 2009년 29억 원 수준에서 2020년 86억 원으로 확대되었다(국방부, 2020a).

#### 4.2 전자책 및 독서지원 서비스

2019년 부대 내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 진중문고 등 도서와 관련된

〈표 6〉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기준 시설 및 인력

구분	면적		비고
도서관 시설 및 자료비치 기준	서고	42㎡	장서 6,000권 기준
	열람실	13㎡	열람석 6석 기준
	관리실	11㎡	여유공간 4㎡ 포함
	계	66㎡	
사서운영	『도서관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는 그 시설 및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의 사서 직원을 둔다. 다만, 부대의 인력 운영 등을 감안하여 도서관학·문헌정보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간부 또는 병사를 선발·운영할 수 있다.		

출처: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국방부훈령 제2429호.

〈표 7〉 진중문고 보급현황(2019년 기준)

(단위: 권, 질)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보급권수	712,311	769,815	734,160	801,540	709,560	765,600	922,720	885,159
선정 권수	54	57	56	61	54	58	73	73
보급수량(질)	13,190	13,500	13,110	13,140	13,140	13,200	12,640	12,130

출처: 국방통계연보(국방부, 2020a)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 의식 및 생활조사'(한국국방연구원, 2020)에 따르면 진중문고 이용률은 2018년 53.9%, 2019년 41.3%, 2020년 38.6%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2020)의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전자책 독서율은 2015년 기준으로 2017년에는 38.2%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6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국방부는 병사들의 도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자 하였다.

육군은 2008년부터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나, 본격적인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19년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육군 전자도서관 통합 플랫폼을 구축 및 시범 운영하며 서비스를 확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군은 2020년 기준 전자책 약 28,000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병영도서관 도서 구입비 15억 원 중 2억 원 정도의 일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예산 약 4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전자책은 약 43,000권(신규 15,000권 구매)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군은 2010년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9년부터 본격적인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2021년 약 2,500만 원 정도를 집행 중이며 약 4,000종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종은 1권을 구매하면 3-5명이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해군은 해군본부가 아닌 해군사관학교에서 전자책을 수서하여 전 해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형태로 전자도서관은 2003년 도입되었으나, 2017년부터 전 해군에 확대되어 서비스 중이다.

군별 병영도서관은 종이책을 중심으로 부대

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자책은 육군 본부, 공군 본부, 해군사관학교에서 총괄적으로 수서 및 관리하여 전 군에 배포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비해 2020년 기준 육군 장병의 전자도서관 가입은 총 17,394명 4.3%로 나타났으며, 이용률은 총 5,464명 1.4%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자책 독서율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병사의 스마트폰 용도별 이용'에서 '전자책 읽기'는 28.3%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용도별 이용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 2020b).

변화하는 병영 환경과 함께 군에서는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한 사업뿐만 아니라 병영도서관 활성화 및 병영 내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방부 차원, 문화체육관광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각급 부대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방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사랑의책나눔기 운동본부의 협조를 받아 2012년부터 '병사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코칭은 50개 부대에서 시작하여 2019년에는 300개 부대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국방부는 2013년 국회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국회 전자도서관의 방대한 지식정보를 1,800여개의 병영도서관에서 활용하게 함으로써 복무 중인 장병들이 전문지식과 다양한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1년부터 '병영도서관 운영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방부 협력 교육으로 육해공군 병영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병영도서관 운영 실무 및 독서지도 방법 등을 교육한다. 또한 각 군은 부대별 특성에 맞게 독후감 경진대회,

독서왕 선발대회, 독서퀴즈, 독서추천 릴레이, 저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형태의 독서진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20).

## 5.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 5.1 병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 5.1.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병사는 총 4,051명으로 육군 2,714명(67.0%), 공군 631명(15.6%), 해군 415명(10.2%), 해병대 291명(7.2%)이었다. 부대별로는 사단급(함대) 303명(7.5%), 여단급(비행단, 전단) 1,062명(26.2%), 연대급(전대) 358명(8.8%), 대대급 이하 2,149명(53.0%)으로 표집되었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병사도 179명(4.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계급은 일병이 1,716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상병 1,362명

(33.6%), 병장 745명(18.4%), 이등병 228명(5.6%)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8〉 참조).

#### 5.1.2 독서실태 및 진중문고 인지 여부

##### 1) 군 복무 이전 독서에 대한 관심도

병사들의 군 복무 이전의 독서에 대한 관심도는 〈표 9〉와 같이 '보통'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낮은 편' 21.8%, '낮음' 17.1%, '높은 편' 17.0%, '높음' 9.6% 순으로 나타나 군 복무 이전에 병사들은 대체로 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입대 전후 독서량

입대 전후의 월평균 독서량을 조사한 결과 〈표 10〉과 같이 약 1.5권에서 약 1.9권으로 입대 전보다 후에 월평균 독서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대 후 독서량은 해병대가 월평균 2.4권으로 가장 높았고, 공군 2.1권, 해군 2.0권, 육군 1.8권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8〉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4,051	100.0
소속군 유형	육군	2,714	67.0
	공군	631	15.6
	해군	415	10.2
	해병대	291	7.2
소속부대	사단급(함대)	303	7.5
	여단급(비행단, 전단)	1,062	26.2
	연대급(전대)	358	8.8
	대대급 이하	2,149	53.0
	잘 모르겠음	179	4.4
현재 계급	이등병	228	5.6
	일병	1,716	42.4
	상병	1,362	33.6
	병장	745	18.4

〈표 9〉 군 복무 이전 독서에 대한 관심도

구분	사례 수(명)	비율(%)					
		낮음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높음	
전 체	4,051	17.1	21.8	34.6	17.0	9.6	
소속군 유형	육군	2,714	18.8	21.9	33.9	16.8	8.5
	공군	631	13.5	21.4	32.3	19.2	13.6
	해군	415	14.2	21.0	40.0	13.7	11.1
	해병대	291	13.4	22.3	37.8	17.9	8.6
소속부대	사단급(합대)	303	17.5	22.1	34.7	15.8	9.9
	여단급(비행단, 전단)	1,062	13.9	22.1	34.7	18.5	10.6
	연대급(전대)	358	20.7	20.9	34.4	12.6	11.5
	대대급 이하	2,149	17.5	21.7	34.2	17.6	9.0
	잘 모르겠음	179	22.9	21.8	39.1	10.1	6.1
현재 계급	이등병	228	17.5	24.1	35.1	18.9	4.4
	일병	1,716	16.6	23.3	35.4	15.6	9.2
	상병	1,362	17.5	21.0	35.0	17.0	9.5
	병장	745	17.6	19.1	31.7	19.6	12.1

〈표 10〉 입대 전후 월평균 독서량

구분	입대 전(권)	입대 후(권)	증가(권)	
전 체	1.5	1.9	0.4	
소속군 유형	육군	1.5	1.8	0.3
	공군	1.5	2.1	0.6
	해군	1.8	2.0	0.2
	해병대	1.7	2.4	0.7
소속부대	사단급(합대)	1.6	1.8	0.2
	여단급(비행단, 전단)	1.4	2.0	0.6
	연대급(전대)	1.9	2.2	0.3
	대대급 이하	1.5	1.9	0.4
	잘 모르겠음	1.2	1.8	0.6
현재 계급	이등병	1.3	1.6	0.3
	일병	1.4	1.7	0.3
	상병	1.7	2.0	0.3
	병장	1.5	2.4	0.9

군별 입대 전후 독서량을 비교하면 해병대가 0.7권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공군 0.6권, 육군 0.3권, 해군 0.2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계급별 입대 전후 독서량은 병장이 0.9권으로

다른 계급에 비해 비교적 높은 독서량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등병, 일병, 상병은 모두 0.3권으로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3) 부대 내 독서경험 및 목적

병사들에게 최근 6개월 이내에 부대 내에서 책을 읽은 경험과 독서량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병사들의 81.1%가 독서경험이 '있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없음'은 18.9%로 나타났다. 독서경험이 있는 병사들은 최근 6개월 이내에 평균 6.8권을 읽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2권' 정도를 30.0%로 가장 많이 읽었으며, '3-4권' 23.6%, '5-6권' 16.9%, '7-10권' 15.6%, '11권 이상' 13.9% 순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의 부대 내 '독서 목적'은 응답자의 59.0%가 '새로운 지식/정보를 얻기 위하여'라고 응답하였으며, '여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51.0%, '교양을 쌓기 위해서' 43.1%,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34.0%, '책 읽는 것이 좋아서' 29.1%, '제대 후 취직/복학/입시 준비 등을 위해서' 26.3% 순으로 조사되었다(복수 응답).

이와 같은 결과는 2019년 '국민독서실태조사'의 성인 대상 '독서 목적' 상위 5위 항목까지의 결과와 순서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서 목적'은 병영이라는 특수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병사들의 계급별 독서 목적을 분석한 결과, 이등병은 '여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66.3%로 가장 많았고, 일병 이상 계급의 병사들은 '새

로운 지식/정보를 얻기 위하여' 독서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상병 계급의 병사들은 다른 계급보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 하려고' 독서하는 경향이 있고, 병장 계급의 병사들은 '교양을 쌓기 위해서', '제대 후 취직/복학/입시 준비 등을 위해서', '부대 내 직무에 필요해서' 등의 목적에 대해 다른 계급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4) 진중문고 인지 여부 및 관심도

진중문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에 대해 병사들은 <표 11>과 같이 '알고 있다' 43.9%,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4.7%로 응답함으로써 진중문고를 대체로 인지(78.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으로는 진중문고는 "병영도서관 도서보다 최근 도서이고 베스트셀러 위주여서" 이용자들이 병영도서관 도서보다 더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병사들은 병영도서관 도서와 진중문고 도서 상관없이 책을 선택하여 읽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진중문고 도서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병사들에게 명확히 인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병사들의 21.4%가 진중문고를 '모른다'라고 응답한 결과는 2020년 KIDA 조사결과 '진중문고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진중문고가

<표 11> 진중문고 인지 여부

비고	사례수(명)	비율(%)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4,051	43.9	34.7	21.4	
소속군 유형	육군	2,714	43.5	35.2	21.3
	공군	631	48.8	32.3	18.9
	해군	415	38.1	34.5	27.5
	해병대	291	46.0	35.4	18.6

무엇인지 몰라서' 27.3%와 유사한 결과로 진중문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 홍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중문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병사들의 진중문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는 '보통'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높다(높음과 높은 편)' 38.9%, '낮다(낮음과 낮은 편)' 22.1% 순으로 조사되었다.

5) 진중문고의 이용도서 분야

병사들이 군 복무기간 동안 이용한 진중문고 도서 분야에 대한 문항으로 '전혀 선택한 적 없음'을 1점, '자주 이용하였음'을 10점으로 하는 수치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응답자가 군 복무기간 동안 진중문고에서 자주 이용하여 읽은 도서 분야는 '자기계발/리더십'이 9.9% (4.80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소설' 9.4%(4.51점), '취미/오락' 8.2%(4.56점), '인문과학' 7.4%(4.15점), '취업/창업/재테크' 6.3% (4.04점), '경제/경영' 6.3%(3.92점)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12> 참조).

군별 이용도서 분야를 조사한 결과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모두 '자기계발/리더십' 분야의

도서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중교' 분야는 가장 적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1.3 전자책 이용 경험 및 활성화 방안

1) 전자도서관의 전자책 이용 가능 여부 및 인지 경로

병사들은 국방부 인터넷 내 전자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항에 대해 '모른다'라고 53.3%가 응답하였으며, '알고 있다' 21.9%,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4.8%로 전자책 이용 가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자도서관의 전자책 이용에 대해 알게 된 경로를 질문한 결과 <표 13>과 같이 '부대 내 병사들에게 들어서'가 43.2%로 가장 많았고, '교육을 통해서' 18.6%, '홍보를 통해서' 16.3%, '부대 내 간부에게 들어서' 14.4%로 군 주최의 교육과 홍보보다는 동료와 간부들을 통해 인지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2) 전자책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전자도서관의 전자책 제공에 대해 '알고 있는' 병사 중 전자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라고

<표 12> 진중문고의 이용도서 분야

분야	평균(10점 만점)	분야	평균(10점 만점)
한국소설	3.67	사회/정치	3.56
외국소설	4.51	경제/경영	3.92
시, 수필	2.75	자연과학	3.76
예술분야	3.40	국방/군사/안보	2.70
언어분야	3.31	취업/창업/재테크	4.04
종교분야	2.18	취미/오락	4.56
인문과학(역사/철학 등)	4.15	자기계발/리더십	4.80
전체		3.67	

〈표 13〉 전자책 이용 인지 경로

비고		사례수(명)	비율(%)			
			부대 내 병사들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부대 내 간부들
전체		1,893	43.2	18.6	16.3	14.4
소속군 유형	육군	1,147	36.7	20.1	18.9	16.2
	공군	385	59.7	13.8	10.6	6.8
	해군	222	56.8	16.7	8.6	14.0
	해병대	139	29.5	23.0	22.3	21.6

응답한 경우가 67.1%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32.9%에 불과했다. 전자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병사들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전자책을 평균 4.45권정도 읽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별로는 ‘해병대’가 7.43권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6.71권, ‘공군’ 4.09권, ‘육군’ 3.30권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도서관에서 전자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병사들은 전자도서관에 대해 〈표 14〉와 같이 77.0%가 ‘만족한다(만족과 만족하는 편)’라고 응답하였다. ‘만족’의 이유로는 ‘도서접근의 편리함’이 48.4%로 가장 많았고, ‘자료의 종류가 다양함’ 17.3%, ‘최신 자료가 제공됨’ 14.6%, ‘자료 검색이 편리함’ 10.6%, ‘전자책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음’ 8.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이라 응답한 이유로는 ‘자료가 다양하지 않음’ 30.8%, ‘도서접근이 불편함’ 30.1%,

‘자료의 최신성이 떨어짐’ 20.3%, ‘전자책 사용 방법이 어려움’ 7.7%, ‘자료 검색이 불편함’ 2.1% 순으로 조사되었다.

3) 진중문고의 전자책 제공 시 선호기기 및 전자책 유형

전자책 이용 경험과 상관없이 모든 병사에게 진중문고에 전자책 형태가 추가로 제공된다면 전자책을 읽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기기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병사들은 ‘스마트폰’을 54.2%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블릿 PC’ 22.1%, ‘PC/노트북’ 16.6%, ‘전자책 전용 단말기’ 6.5%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15〉 참조). 또한 병사들은 진중문고가 전자책 형태로 제공될 경우 ‘일반 전자책(e-book)’을 85.1%로 가장 선호하였으며, ‘오디오북’은 14.0%에 불과하였다.

〈표 14〉 전자도서관 이용 만족도

구분		사례수(명)	비율(%)				4점 평균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	만족	
전체		622	5.9	17.0	58.7	18.3	2.89
소속군 유형	육군	287	8.4	17.8	59.6	14.3	2.80
	공군	176	4.0	21.0	56.8	18.2	2.89
	해군	110	3.6	12.7	59.1	24.5	3.05
	해병대	49	4.1	8.2	59.2	28.6	3.12



〈표 15〉 전자책 제공 시 선호기기

구분	사례수(명)	비율(%)				
		스마트폰	태블릿PC	PC/노트북	전자책 전용 단말기	
전체	4,051	54.2	22.1	16.6	6.5	
소속군 유형	육군	2,714	58.3	19.6	14.9	6.4
	공군	631	42.5	34.7	16.8	5.7
	해군	415	45.8	21.2	23.6	8.9
	해병대	291	52.6	19.6	21.6	5.8

## 4) 소속부대의 전자책 독서환경 만족도

병사들은 소속부대의 전자책 독서환경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 46.8%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한다(불만족과 불만족하는 편)' 29.6%, '만족한다(만족과 만족하는 편)' 23.6% 순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부대 내 IT 환경, 기기, 접근 허용 시간 등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 5) 전자책 관련 인식

병사들의 전자책 관련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전자책의 수용 의도 및 행동을 설명하는 Rogers (2003)의 혁신확산모형(Diffusion of Innovation Model)을 기반으로 기술 자체의 속성, 수용자의 속성, 사회적 맥락 및 이용 의도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았다(〈표 17〉 참조).

첫째, '상대적 이점'이란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낫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병사들은 '전자책에서 원하는 내용이나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62.2%가 '그렇다(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높게 평가하였으며,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을 사는 쪽이 지출을 줄일 수 있다' 57.6%,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보관하거나 휴대하기 편하다' 54.3% 순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적합성'은 기존의 가치관이나 경험, 필요에 부합하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로 병사들은 '부대 내에서 전자책을 읽어도 어색하지 않다'라고 50.4%가 '그렇다(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로 응답하였으며, '전자책이 군 생활에 잘 어울린다고 느낀다' 45.3%, '종이책이나 전자책이나 독서에는 큰 차이가 없다' 42.8% 순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복잡성'은 전자책을 이해하거나 사용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로 '원하는 주제나 종류의

〈표 16〉 소속부대 전자책 독서환경 만족도

구분	사례수(명)	비율(%)					5점 평균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만족		
전체	4,051	17.9	11.7	46.8	16.0	7.6	2.84	
소속군 유형	육군	2,714	18.7	11.8	47.8	14.8	6.9	2.80
	공군	631	13.6	11.4	45.2	20.4	9.4	3.00
	해군	415	20.0	12.8	44.8	14.0	8.4	2.78
	해병대	291	16.5	10.3	44.3	19.9	8.9	2.95

〈표 17〉 전자책 관련 인식

항목	설문문항	평균값	중위값	표준편차
상대적 이점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보관하거나 휴대하기 편하다	3.51	4	1.2
	종이책보다 전자책에서 원하는 내용이나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3.68	4	1.1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을 사는 쪽이 지출을 줄일 수 있다	3.63	4	1.1
호환성/ 적합성	부대 내에서 전자책을 읽어도 어색하지 않다	3.42	4	1.2
	전자책이 군 생활(라이프 스타일)에 잘 어울린다고 느낀다	3.31	3	1.2
	종이책이나 전자책이나 독서에는 큰 차이가 없다	3.20	3	1.3
복잡성	전자책은 밑줄을 치거나 메모를 남기기가 어렵다	3.16	3	1.2
	원하는 주제나 종류의 출판물을 전자책으로 찾기가 어렵다	2.86	3	1.2
	전자책 리더기의 고장이나 오작동이 걱정스럽다	2.90	3	1.2
관찰 가능성	부대원들이 전자책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2.33	2	1.3
	나는 부대 밖 사회에서 누군가가 전자책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3.24	3	1.3
	관심이 있는 책이 전자책으로 판매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3.28	3	1.3
시험 가능성	전자책 콘텐츠를 구입·대출하기 전에 “미리보기” 기능은 중요하다	3.85	4	1.0
	(구입·소유가 아닌) 전자책 리더기나 콘텐츠 대출 서비스는 중요하다	3.74	4	1.0
	우리 부대에서 전자책 보급이 시험적으로 이루어지면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3.70	4	1.1
이용 의도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전자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것이다	3.62	4	1.1
	나는 전자책 리더기나 콘텐츠를 실제로 사용해본 적이 있다	3.08	3	1.3
	나는 전자책을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다	3.42	3	1.2

출판물을 전자책으로 찾기가 어렵다' 29.3%, '전자책 리더기의 고장이나 오작동이 걱정스럽다' 31.4%가 '그렇다(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병사들은 전자책에서의 검색과 기계 고장, 오작동 등을 어렵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책은 밑줄을 치거나 메모를 남기기 어렵다'는 41.1%로 나타나 다른 요인에 비해 다소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관찰가능성'은 전자책 채택의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도로 병사들은 '부대원들이 전자책을 읽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56.0%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으나, '부대 밖 사회에서 누군가 전자책을 읽는 것을 본 적이 있다' 47.6%, '관심 있는 책이 전자책으로 판매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47.1%가 '그렇다(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부대 내 전자책 관찰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다섯째, '시험가능성'은 전자책 채택 이전에 경험해 볼 수 있는 정도로 병사들은 '전자책 콘텐츠를 구입·대출하기 전에 “미리 읽어보기” 기능은 중요하다' 66.7%, '(구입·소유가 아닌) 전자책 리더기나 콘텐츠 서비스는 중요하다' 61.2%, '우리 부대에 전자책 보급이 시험적으로 이루어지면 나도 참여해서 읽어보고 싶다' 58.1% 순으로 '그렇다(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용의도'인 전자책을 수용하고 이용하려는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병사들은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전자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것이다' 54.3%, '전자책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 46.1%, '전자책 리더기나 콘텐츠를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있다' 40.1% 순으로 '그렇다(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 5.2 운영자 인터뷰 결과

전자책 서비스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진중문고의 전자책 도입 필요성, 개선사항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도서관 관계자 및 전자책 운영 실무자(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병영도서관 및 전자도서관(전자책 서비스)은 육군, 공군, 해군 등 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육군은 4개 기관(육군, 육사, 3사, 교육사령부)이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군은 국방망과 인터넷망으로 구분하여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해군 역시 국방망과 인터넷망을 구분해서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자책 구입 비율은 육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군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전자도서관을 통한 전자책 이용은 군별로 모두 가능하나, 홍보 및 교육 부족으로 전자책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군별 상황에 따라 전자책 이용이 어려울 수 있

〈표 18〉 전자책 서비스 운영 현황 인터뷰 결과

운영 현황	인터뷰 내용
병영도서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영도서관은 육군, 공군 및 해군 개별 부대에서 운영함</li> </ul>
전자도서관 제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도서관(전자책)은 육군, 공군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며, 해군의 경우 해군사관학교에서 구매해서 전 해군이 이용함</li> <li>• 인터넷망은 스마트폰, 국방망은 전용 PC 용도로 사용, 전자책 이용 시 인터넷망 통일 필요</li> </ul>
군별 전자책 서비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기관(육군, 육사, 3사, 교육사령부)이 같이 전자도서관 운영</li> <li>- 국방망과 인터넷망 구분해서 전자도서관 운영</li> <li>- 전자책 구입 비율: 일반도서 65%, 전자책 35%</li> <li>- 전자책 예산: 2020년 본격화(2020년 약 2억원, 2021년 약 4억원)</li> <li>- 2019년부터 인터넷망 용도로 1종별 3권, 전자도서관은 3-5권을 기본으로 구매</li> <li>- 이용자 많아 예약 대기가 길어지면 복본 늘려 구매, 최대 30권까지 구입</li> </ul> </li> <li>• 공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망과 인터넷망 구분해서 전자도서관 운영</li> <li>- 국방망은 2010년부터 운영, 2,800종 정도 보유</li> <li>- 2019년부터 병사들이 휴대전화 소지함에 따라 인터넷망으로 전자책 운영</li> <li>- 전자책 구입 비율: (공군 본부) 전자책 5%</li> <li>- 전자책 예산: 약 2,500만원, 인터넷망 1,200종, 1종별 3-5권 구매</li> </ul> </li> <li>• 해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망 2003년에 도입, 2017년도에 전 해군에 확대</li> <li>- 국방망과 인터넷망 구분해서 전자도서관 운영</li> <li>- 전자책 구입 비율: 일반도서 70%, 전자책 30%</li> <li>- 전자책 예산: 약 3,000만원, 연말에 예산 남는 경우 재배정받아서 구입도 함</li> <li>- 전자책은 휴대전화 사용 이전부터 서비스하였으며, 국방망은 약 7,500종</li> <li>- 국방망은 1종별 5권, 인터넷망은 2015년부터 2권씩 구매</li> </ul> </li> </ul>

으며, 해군의 경우 출항 시 함정 내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어 육상에서 미리 전자책을 저장해야 하는 등 전용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도서 및 베스트셀러의 경우 전자책 구입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전자책 구입 시 유통업체마다 다른 전자책 뷰어 및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군별 도서관 자체적으로 전자책의 관리, 서비스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셋째, 진중문고의 전자책 도입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표 20〉과 같이 운영자들은 병영도서관 및 진중문고의 운영과 관리문제 보완을 위해

전자책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영도서관 자체에서 장서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디지털 형식인 전자책은 물리적 공간 및 대출/반납 관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 병영 내 전담 관리자의 부재로 인한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운영자들은 진중문고의 전자책 도입은 이용자 수 증가보다는 평소 독서에 관심 있는 병사들이 다양한 접근 경로로 활용할 수 있는 독서문화의 보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넷째, 전자도서관 및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 및 활성화 방안을 조사한 결과 〈표 21〉과 같이 운영자들은 전자책 수서 시스템의 개선이

〈표 19〉 전자책 서비스 문제점 인터뷰 결과

문제점	인터뷰 내용
홍보 및 교육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도서관 통한 전자책 이용은 군별 모두 가능하나, 전자책 서비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li> <li>진중문고의 전자책 도입에 앞서 우선 군별 전자책 이용에 대해 병사들에게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li> <li>운영자 중 전자도서관 관련 전달 및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의견이 많음</li> </ul>
전자책 이용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사들의 독서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훈련으로 바쁘고 힘들기 때문이며, 휴식시간에는 스마트폰 이용이 많음</li> <li>병영 내 휴대전화 도입 이후로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률이 줄어들었고, 진중문고 및 전자책 이용률도 줄었음</li> <li>해군의 경우 배가 출항하면 인터넷을 쓸 수 없으므로 육상에서 미리 저장해서 볼 수 있는 전자도서관 용도의 패드 또는 기기 등의 활용 필요</li> </ul>
신간 도서 이용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이책과 전자책의 출간 시기가 서로 다르고 전자책으로 베스트셀러를 구독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함</li> <li>저작자나 출판사는 저작물을 판매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관계는 베스트셀러 등 종이책과 전자책 동시 출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이책보다 전자책 자료가 부족함</li> <li>출판사는 종이책을 출간하고 이에 대한 판매로 인하여 기본적인 이윤이 발생하게 된 이후에야 전자책을 출간하는 비즈니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li> </ul>
전용 뷰어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책 보급 시 유통업체마다 각기 다른 전자책 뷰어 또는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는 제약점 존재</li> <li>전자책을 제공하는 특정 유통업체 이용 시 해당 업체에서 지원하는 전자책 뷰어 또는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li> <li>전자책의 범위 및 카테고리 구분이나 화면 구성, 신규 서비스 개발 등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것은 어려움</li> </ul>

〈표 20〉 진중문고의 전자책 도입 필요성 인터뷰 결과

진중문고 전자책 도입 필요성	인터뷰 내용
운영 및 관리문제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중문고의 관리 및 접근성 측면에서는 전자책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식</li> <li>병영도서관 자체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병사들의 독서에 대한 의지가 더욱 없어져 오히려 그런 부대는 전자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li> <li>전자책은 디지털 파일이라는 특성상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보존을 위한 물리적 공간 및 대출/반납 관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 병영 내 전담 관리자의 부재로 인한 문제 해결 가능</li> <li>진중문고의 전자책 도입은 이용자 수의 증가보다는 평소 독서에 관심 있는 병사들이 다양한 접근 경로로 활용할 수 있는 보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li> </ul>
병영 및 독서문화 개선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9년 4월부터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제도가 전면 시행 중</li> <li>스마트폰 기기를 이용한 전자책 콘텐츠 제공 확대는 병사들의 자아실현과 자기계발 등 긍정적이고 건전한 휴대전화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병영문화 개선에 도움 가능</li> <li>병사들은 대부분 20대이며, 이는 전자책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로 스마트 기기에 친숙한 Z세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임</li> <li>진중문고를 전자책으로 제공하는 것은 독서 접근성 향상 및 다양한 독서환경 제공 가능</li> </ul>

〈표 21〉 개선사항 및 활성화 방안 인터뷰 결과

개선사항/활성화 방안	인터뷰 내용
전자책 수서 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책 수서는 '소장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책 구매 단가는 종이책에 비해 높은 편이라 예산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도서를 대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여형'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인식</li> <li>개인보다 기관 구매 시 기본적으로 단가가 두 배 이상 비싸지고, 베스트셀러의 경우 그 이상으로 비싼 경우가 많아 예산이 많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한번에 볼 수 없는 불편이 생김</li> <li>'밀리의 서재'와 같은 도서대여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신간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전자책에 대한 관심이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음</li> <li>구별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플랫폼(교보문고, 북큐브 등)이 아닌 국방부에서 모든 업체를 포괄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어느 업체에 편중되지 않는 전자책 구매를 기대하고 있음</li> </ul>
전자책 구매 방법의 변화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에서는 아직도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 방식이 종이책처럼 도서관의 소유권을 요구하는 납품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출판 선진국의 도서관 전자책 공급은 저자와 출판사의 저작권을 존중하여 오래전부터 납품방식이 아닌 라이선스(이용 허락) 방식이 정착됨</li> <li>따라서 전자책을 보급할 경우 이와 같은 라이선스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ul>
이용자 중심 정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책 이용 독자 중 공공도서관의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단순히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li> <li>병사들에게 전자책을 통해 진중문고를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전자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이책과 전자책의 장병 선호도 및 장단점 분석을 통해 추진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li> </ul>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영 내 휴대전화 도입 이후로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률과 진중문고 및 전자책 이용률이 줄었음</li> <li>반면, 자기계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독서 클럽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간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li> </ul>
전자책 전용기기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책 이용을 위한 전용기기 보급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li> <li>특히 해군의 경우 함정이 출항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하므로 전용기기를 보급해 출항 전 진중문고/전자책을 다운로드하면 장병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파악됨</li> </ul>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소장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책 수서를 '대여형'으로 전환하고, 군별로 운영 중인 전자책 플랫폼을 국방부에서 공통 플랫폼을 개발하여 전자책 공급 업체의 편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자책 이용을 위한 전용기기 보급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특히 해군의 경우 함정이 출항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하므로 전용기기를 보급해 출항 전 전자책을 다운로드 하면 장병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 6. 전자책 서비스 활성화 방안

병영도서관 및 전자책 서비스 운영 현황,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분석한 결과 전자책 서비스는 전자도서관의 낮은 이용률 및 인지도, 부대 내 전자책 접근 환경 개선, 전자책 구매 방법 개선, 전자책 보급 시 유통업체마다 각기 다른 전자책 뷰어 및 관리 시스템 사용 문제, 전자책 전용기기 보급 필요, 진중문고 관리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자책 보급 등이 주요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영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전자책 서비스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6.1 전자책 서비스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전자책 서비스의 실질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책 보급의 종수나 권수를 확대하는

수량적 접근보다는 병사들이 전자책 서비스를 인지할 수 있는 홍보 및 프로그램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장병들은 전자도서관에서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식한 뒤에도 실제 이용한 장병의 비율은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실제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장병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전자도서관에 대한 홍보와 실제로 전자책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인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국방 TV 및 국방일보, '청년DREAM, 국군드림'을 이용한 홍보 및 체험 이벤트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국방부는 2019년부터 모든 병사가 개별 휴대전화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청년DREAM, 국군드림' 앱을 활용하여 전자책을 확대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자책 콘텐츠 구매 및 확충, 전자도서관 홍보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MZ세대의 커뮤니케이션 특징을 고려한 소셜미디어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및 카카오톡 등 온라인 매개체를 활용한 전자도서관 및 전자책 소개, 홍보 설문 및 퀴즈, 독후감 대회, 낱말 퍼즐 등 부대별로 진행되어온 독서프로그램을 전자책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법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군에서 실시 중인 '독서코칭' 사업의 경우 장병들의 독서 동기를 자극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독서코칭 이후 연계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에 형성된 독서 모임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독서코칭' 사업의 후속 또는 연계 사업으로 '독서동아리'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전자책 이용도 활성화 하고 병영 내 독서활동의 연계성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6.2 전자책 운영 및 이용 증진을 위한 디바이스 및 플랫폼 활용

전자책 서비스 이용 증진과 활성화를 위해 장병들이 전자책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전자책 관련 인식' 문항에서 병사들은 전자책에 대한 실제 이용 의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사들은 '전자책에서 원하는 내용이나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고 높게 평가하였으며, '원하는 주제나 종류의 출판물을 전자책으로 찾기가 어렵다', '전자책 리더기의 고장이나 오작동이 걱정스럽다'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응답하여 전자책에서의 검색과 기계고장, 오작동 등을 어렵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대원들이 전자책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자도서관 인지도 및 관심도, 이용 실적이 낮은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 결과 병사들은 전자책을 읽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기기를 '스마트폰(54.2%)'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운영자들은 인터뷰 결과 일과시간 종료 후 장병들은 대체로 휴대전화 사용에 열중하고 독서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휴대전화의 작은 화면으로 책을 읽기

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휴대전화로 전자책을 읽는 동안 SNS 알림 등 저해 요인이 많아 독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위한 전자책 전용기기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영자들은 전자책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군별로 운영 중인 전자도서관 운영 플랫폼(교보문고, 북큐브 등)이 아닌 국방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군 전체의 전자책 이용현황 및 관리도 가능할 것이라 보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방부에서 2024년까지 구축 예정인 '정신전력교육' 플랫폼에 전자책을 보급할 수 있으며, 개인별 특성에 맞는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6.3 전자책 라이선스 및 수서 시스템 개선

도서관 자원으로서의 전자책은 본질적으로 이용에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별도의 반납이 필요치 않고, 동시에 무한대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상호대차를 통해 거의 모든 전자책을 즉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되나 이러한 전자책의 특성은 도서관이 전자책을 구입하고 서비스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백지원, 2014). 또한 군별 전자도서관 운영 시에는 전자책 전담 관리자가 부재하고, 유통업체마다 각기 다른 전자책 뷰어 및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제약점과 종이책과 전자책의 출간 시기가 서로 달라 전자책으로 베스트셀러를 구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저작권 이슈 해결을 통한 전자책 라이선스 모델 논의가 필요하다. 출판계는 '소장형' 전자책보다 '대여형' 전자책 서비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운영자 인터뷰 결과에서도 현재 전자도서관의 전자책 수서는 '소장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자책 구입 단가는 종이책에 비해 높은 편이라 예산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도서를 대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여형'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전자책을 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개인 구매보다 기본적으로 단가가 두 배 이상 이상이며, 베스트셀러의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인 경우가 많아 높은 예산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동시에 볼 수 없는 불편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6.4 진중문고의 전자책 서비스 단계적 도입

국방부는 2019년 육군 전자도서관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시범 운영을 통하여 전자책 통합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독서행태 변화에 따라 진중문고 보급을 전자책 서비스로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다. 또한 2020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전자책 독서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중문고의 전자책 서비스 도입은 병사들의 독서활동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대 특성상 넓은 공간을 도서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을 때

진중문고의 전자책 서비스는 도서 서비스 공간 및 관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결과 운영자들은 병영도서관 자체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병사들이 독서에 대한 의지가 더욱 없어질 때가 있어 전자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군별 전자도서관의 경우 전체 장병들의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런 환경에서 진중문고의 전자책 도입을 통해 진중문고 이용자가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2021년 독서코칭 사업에서 6권 중 1권을 전자책으로 제공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을 때 병사가 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전에 읽어 와야 할 도서 6권 중 전자책으로 제공된 도서를 사전에 읽고 온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현행 진중문고 인쇄본은 시중 정가의 50%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소장형' 전자책의 경우 시중 정가로 구매해야 하므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인터뷰 결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중문고를 '대여형'으로 도입할 경우 기존 진중문고 인쇄본 구매 시보다 적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여형' 서비스는 유통사별 제공 도서가 다르므로 진중문고 도서 선정 분야 중 병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자기계발/리더십, 외국소설, 취미/오락, 인문과학, 취업/창업/재테크, 경제/경영 분야 등의 순으로 일부 분야만을 대상으로 시범 제공 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7. 결론 및 제언

국방부는 2019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제도 시행 이후 병사들의 도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행태 변화 등에 따라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진중문고의 이용 증진을 위해 전자책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 전자도서관 및 전자책 서비스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스마트 기기에 친숙한 병사들을 위해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독서 접근성 향상 및 다양한 독서환경 조성을 확대하려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를 기반으로 병영도서관 및 전자책 서비스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병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독서실태 및 진중문고 인지 여부, 전자책 이용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자책 이용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자책 운영 실무자(담당자)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책 서비스는 전자도서관의 낮은 이용률 및 인지도 문제, 부대 내 전자책 접근 환경 개선 필요, 전자책 구매 방법 개선, 전자책 보급 시 유통업체마다 각기 다른 전자책 뷰어 및 관리 시스템 사용 문제, 전자책 전용기기 보급, 진중문고 관리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자책 보급 등이 주요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책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도서관 및 전자책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홍보와 실제로 전자책을 이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장병들은

전자도서관에서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자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장병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독서코칭 사업의 후속 또는 연계 사업으로 전자책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전자책 이용도 활성화하고 병영 내 독서활동의 연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자책 운영 및 이용 증진을 위한 전자책 전용 디바이스와 국방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전자책 플랫폼 서비스가 필요하다. 인터뷰 결과 휴대전화의 작은 화면으로 책을 읽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휴대전화로 전자책을 읽는 동안 SNS 알림 등 저해 요인이 많아 독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군별로 운영 중인 전자도서관 운영 플랫폼 대신 국방부에서 2024년까지 구축 예정인 '정신전력교육' 플랫폼에 전자책을 보급하여 군 전체의 전자책 이용현황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전자책 수서를 위한 라이선스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전자도서관의 전자책 수서는 '소장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출판계는 '대여형' 전자책 서비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자책을 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개인 구매보다 기본적으로 단가가 두 배 이상이며, 베스트셀러의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인 경우가 많아 높은 예산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볼 수 없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진중문고 보급을 전자책 서비스로도 확대하려는 시점에서 진중문고의 전자책 서비스 도입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전자도서

관의 경우 장병들의 전반적인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 이런 환경에서 진중문고의 전자책 도입을 통해 이용자가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진중문고의 전자책 도입은 이용자 수 증가보다는 평소 독서에 관심 있는 병사들의 다양한 접근 경로로 활용할 수 있는 보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진중문고의 기초자료인 베스트셀러의 경우 전자책화 될 수 있는 경향이 적어 진중문고 도서 선정 분야 중 구매 가능한 일부 분야만을 대상으로 시범 제공 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자책 서비스의 이용 실태 및 현

황을 분석하기 위해 군부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의 도서관 이용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용자 수 및 계급 부대 유형 등의 조사범위 및 방법에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국방부, 학계 및 정부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확대된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대별로 다양한 환경을 가진 진중문고에서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대별 특성에 맞는 전자책 플랫폼의 운영 방안, 전자책 전용 뷰어 및 기기의 활용성 등을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19). 전자책, 시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서관 서비스, 393호.
- 국방부 (2020a). 국방통계연보.
- 국방부 (2020b). 정신전력문화정책과 보고서.
- 김영만 (2015). 독서 생태계로 살펴본 병영독서에서의 전자책 활용성에 대한 연구. 출판잡지연구, 23(1), 49-75.
- 노영희, 박우정 (2019). 병영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3), 31-5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9.30.3.031>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법률 제6906호.
- 도서관법. 법률 제18763호.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병영독서활성화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19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출처: <https://www.data.go.kr/data/3075670/fileData.do?recommendDataYn=Y>
- 백지원 (2014).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쟁점과 대응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113-135.  
<https://doi.org/10.4275/KSLIS.2014.48.3.113>
-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국방부훈령 제2429호.
- 성은정, 홍재현 (2015). 공군 병영도서관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1), 77-100.

-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1.077>
- 송승섭 (2009). 병영도서관의 평가지표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3), 355-376.  
<https://doi.org/10.3743/KOSIM.2009.26.3.355>
- 신정아 (2021).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현황에 관한 연구: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중심으로.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4(2), 97-112. <https://doi.org/10.23089/jdca.2021.4.2.007>
- 윤수경, 김명지, 최준호 (2014). 혁신특성과 사용자특성이 전자책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8), 61-73. <https://doi.org/10.5392/JKCA.2014.14.08.061>
- 이애리, 최재원, 김경규 (2012). 전자책 수용에 대한 사용자 저항 결정요인: 혁신특성과 사용자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7(4), 95-115.  
<https://doi.org/10.7838/jsebs.2012.17.4.095>
- 이용훈, 박상미 (2013). 공공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3년도 하계 학술발표대회 발표자료*, 69-81.
- 이지연 (2014).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이용에 대한 발전적 전략 모색.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 3-24
- 장윤금, 전경선, 이해영, 이지수 (2018). 병영도서관 이용 및 독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3), 241-261. <https://doi.org/10.16981/kliss.49.3.201809.241>
- 장인순, 임대현, 김기봉, 김응석, 이남용 (2020). 병영도서관의 모바일 전자책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12(2), 1635-1642.
- 차미경, 송승섭 (2005). 병영도서관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85-306.
- 차미경, 송승섭 (2006). 우리나라 육군 병사들의 독서실태 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333-351.
- 차성중, 한종엽 (2013). 우리나라 병영도서관의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운영 진단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4), 49-78. <https://doi.org/10.4275/KSLIS.2013.47.4.049>
- 한국국방연구원(KIDA) (2020). 국방사회조사통계사업.
- 한국도서관협회 (2020).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주리 (2021).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쟁점과 상생 방안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47(6), 107-129.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ALA) (2021). The State of America's Libraries 2021: A Report from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Steve Zalusky. <https://bit.ly/soal-report-2021>.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IFLA) (2021). Principles for Library eLending. [www.ifla.org/elending/principles](http://www.ifla.org/elending/principles)
- Pharo, M. M. & Learned, A. M. (2011). E-books and the public library: the Evansville Vanderburgh Public Library experience. *Information Standards Quarterly*, 23(2), 16-20.
- Rogers, E. M. (2003). *Diffusion of Innovations* (5th Edition). New York: The Free Press.

Woodward, H. (2010). E-books: Business Planning for the Digital Library. in Collier, Mel ed. Business planning for digital libraries: international approache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ek, Jiwon (2014). E-book lending service in public libraries: Issues and possible countermeasur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3), 113-135. <https://doi.org/10.4275/KSLIS.2014.48.3.113>

Cha, Mikyoung & Song, Sungseob (2005). A study on the administration model for militar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3), 285-306.

Cha, Mikyoung & Song, Sungseob (2006). A study of the reading habits of soldiers in the Korean armed for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3), 333-351.

Cha, Sung-Jong & Han, Jong-Yup (2013). A study on the management diagnosis of military libraries in Korea by analyzing management evalu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4), 49-78. <https://doi.org/10.4275/KSLIS.2013.47.4.049>

Chang, Yunkeum, Jeon, Kyungsun, Lee, Hyeyoung, & Lee, Jisu (2018). A study on improving military library uses and reading activit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3), 241-261. <https://doi.org/10.16981/kliss.49.3.201809.241>

Han, Julie (2021). Study on the Win-Win Plan of library e-book service on the controversial issues with publishers. Studies of Korean Publishing Science, 47(6), 107-129.

Jang, In-Soon, Lim, Dae-Hyun, Kim, Gi-Bong, Kim, Ung-Suk, & Lee, Nam Yung (2020).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mobile e-Book service in the military librar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Policy & Management, 12(2), 1635-1642.

Kim, Young-Man (2015). A study on the utility of e-books in military reading through the reading ecosystem. Korean Journal of Publishing and Periodical Studies, 23(1), 49-75.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KIDA) (2020). 2020 National Defense Social Survey Statistics Project.

Korea Library Association (2020). Korean Library Yearbook.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 Lee, Aeri, Choi, Jae-Won, & Kim, Kyung-Kyu (2012). The determinants of user resistance to adopting e-Books: Based on innovation characteristics and user attitude.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17(4), 95-115.  
<https://doi.org/10.7838/jsebs.2012.17.4.095>
- Lee, Ji-Yun (2014). Strategies for the e-Book use in public libraries. A Presentation on Vitalization of E-book publication, 3-24.
- Lee, Yong-Hoon & Park, Sang-Mi (2013). A study on the public library e-book service and improvement: focused on Seoul. 2013 Proceeding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69-81.
- Libraries Act. No. 18763.
- Libraries and Reading Promotion Act. No. 6906.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military's revitalization support project.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0). National Reading Status Survey. Available: <https://www.data.go.kr/data/3075670/fileData.do?recommendDataYn=Y>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20a). National Defense Statistics Year Book.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20b). Report of Spiritual Force and Cultural Affairs Policy Division.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9). E-book, Free Library Service from Time and Space, 393.
- Noh, Young-Hee & Kwak, Woo-Jung (2019).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militar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3), 31-5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9.30.3.031>
- Shin, Jeong-A (2021). A study on the status of public library e-book lending services: Focused on Gyeonggi-do Cyber Library. *Journal of D-Culture Archives*, 4(2), 97-112.  
<https://doi.org/10.23089/jdca.2021.4.2.007>
- Song, Sungseob (2009). A study on developing and applying of evaluation indicators in Korea militar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3), 355-376. <https://doi.org/10.3743/KOSIM.2009.26.3.355>
- Sung, Eun-Jung & Hong, Jae-Hyun (2015). The study on operating status and activation of air force libraries.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1), 77-100.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1.077>
- The Operating Instructions of Military Library. No. 2429.
- Yoon, Su-Kyung, Kim, Myung-Ji, & Choi, Jun-Ho (2014). Effects of innovation characteristics

and user characteristics on the adopting e-Books: Focused on innovation resistance mode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8), 61-73.  
<https://doi.org/10.5392/JKCA.2014.14.08.061>